

# “Мне нечего делать.” —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인 영\*

## I. 무엇이 문제인가?

- (1) a. Мне нечего делать. 나는 할 것이 없다.’  
b. Мне негде жить. 나는 살 곳이 없다.’  
c. Мне не с кем было поговорить. 나는 말을 나눌 사람이 없었다.’

본 논문에서 다루려는 구문의 전형적 표층구조는 DAT-NO-K-BE-INF로 이루어진다.<sup>1)</sup> 앞으로 이 유형의 구문을 NO-K구문이라 칭하겠다. NO-K구문은 수많은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도의 미스터리”(Chvany 1975:63)로 남아 있다. NO-K구문은 실로 난제들의 종합 세트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존재한다.

1. NO-K구문의 DAT는 주어인가, 아닌가?
2. NO-K의 K는 의문사인가, 아닌가?
3. NO-K는 두 단위체의 결합인가, 단일 단위체인가?
4. NO-는 부정 존재사 нет의 축약인가, 아닌가?
5. NO-K구문의 BE는 존재사인가, 연결사인가?
6. NO-K구문의 INF는 주어인가, 술어인가, 보충어<sup>2)</sup>인가?

NO-K구문의 통사구조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많다. 논란은 다음과 같이 요약

---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 1) DAT: 여격, NO-: 강세를 받는 부정 접두사, K: 의문사 형태의 어휘, INF: 부정형. (1)의 예들과 다른 어순을 보이는 변이형들에 대해서는 IV장 및 V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 2) 본 논문에서 보충어(complement)’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어(complement)’와 부가어(adjunct)’의 개념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된다.

1. NO-K구문은 무인칭구문인가, 인칭구문인가?
2. NO-K구문은 단문인가, 복문인가?
3. NO-K구문은 부정문인가, 긍정문인가?

NO-K구문의 공식적 구조에 대한 가설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sup>3)</sup>

가설 (i): NO-K가 술어인 구문

(i-a): INF가 술어 NO-K의 보충어인 구문: Исаченко (1954:370-371), Forsyth (1970:277), Георгиева (1971:217), Veurence (1979:68)

(i-b): INF가 주어이고 NO-K가 술어인 구문: Шахматов (1941[1925/1927]:145, 149)<sup>4)</sup>

가설 (ii): 부정 독립적 INF구문<sup>5)</sup>: Галкина-Федорук (1958:242-243), Шведова (1970:569)

가설 (iii): 존재구문

(iii-a): K 의문사절을 갖는 부정 존재구문: Garde(1976)

(iii-b): K 관계사절을 갖는 부정 존재구문: Pesetsky (1982:157), Schoorlemmer (1994:167)

(iii-c): 비한정 대명사 K를 갖는 부정 존재구문<sup>6)</sup>

(iii-d): NO-K라는 명사를 갖는 긍정 존재구문: Rappaport (1986)

정리하자면,<sup>7)</sup>

3) 기존 논의들에서는 (표층에 BE가 부재하는) 현재형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표층에는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 DAT에 대한 언급도 부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논의들의 분류에서 BE와 DAT에 대한 언급은 일단 제외하겠다.

4) Шахматов (1941[1925/1927]:145)는 NO-K구문의 INF가 일반적 일치 문장에서의 주어와는 구별됨을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NO-K구문을 이(二)성분 문장(двусоставное предложение)으로 분류한 점으로 미루어 그는 NO-K구문의 INF를 주어로 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NO-K구문의 긍정 상응문인 ЕСТЬ K구문도 고려에 넣는다면 Neidle(1988:129)도 여기에 속한다. 참고로, Георгиева(1971:217)는 현대러시아어 NO-K구문에 관한 한 가설 (i-a)에 속하지만 그 원천은 독립적 INF구문에서 찾는다(Георгиева 1971:225-226).

6) 기존 연구들 중 명확하게 이 가설의 대표 주자를 꼽기는 힘들지만 (iii-c)는 (iii-b)와 (iii-d)의 간격을 메워주는 잠정적으로 유용한 가설이다. (iii-c)에 속하지는 않지만 K를 비한정 대명사로 간주한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들은 있다. III-1-c를 참조하라.

- (i-a) [NØ -K]pred [INF]comp  
 [ничего]pred [делать]comp
- (i-b) [NØ -K]pred [INF]subj  
 [ничего]pred [делать]subj
- (ii) neg [[K]comp [INF]pred]  
 не [[чего]comp [делать]pred]
- (ii-a) neg [[∃]pred<sub>1</sub> [[K]q [INF]pred<sub>2</sub>]]  
 не [[∅]pred<sub>1</sub> [ничего]q [делать]pred<sub>2</sub>]]
- (ii-b) neg [[∃]pred<sub>1</sub> [Ø]np [[K]rel [INF]pred<sub>2</sub>]]  
 не [[∅]pred<sub>1</sub> [Ø]np [[чего]rel [делать]pred<sub>2</sub>]]]
- (ii-c) neg [[∃]pred [[K]indef.pron [INF]comp]np]  
 не [[∅]pred [[чего]indef.pron [делать]comp]np]
- (ii-d) [∃]pred [[NØ -K]n [INF]comp]np  
 [∅]pred [[ничего]n [делать]comp]np]

NØ -K구문 논의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ЕСТЬ K구문과의 관계이다.

- (2) a. Мне есть что делать. 나는 할 일이 있다.  
 b. Мне есть где жить. 나는 살 곳이 있다.  
 c. Мне было с кем поговорить. 나는 말을 나눌 사람이 있었다.’

(1)과 (2)의 관계는 어떤 접근법을 취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된다. ЕСТЬ K구문의 존재구문적 성격 및 есть의 술어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일치가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 하에서 볼 때, NØ -K 술어설(가설 (i))이나 INF 술어설(가설 (ii))에서는 ЕСТЬ K구문과 NØ -K구문 간의 구조적 상응성이 무너진다. 가설 (iii)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여기서도 두 구문의 BE가 보이는 위치, 강세 및 형태적 차이를 설명해야 하는 과제는 남는다. 나아가서, 부정문이 긍정문으로부터 파생되는 이차적이고 유표적인 구문이며 사용 빈도 수도 긍정문보다 떨어진다는 통념과 달리, NØ -K구문이 ЕСТЬ K구문보다 더 빈번하게 사용되며(Мразек 1972:102) 역사적으로도 우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Георгиева 1971:223)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분명한 사실은 NØ -K구문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DAT, K,

7) pred: 술어, comp: 보충어, subj: 주어, neg: 부정, ∃: 존재사, q: 의문사, rel: 관계대명사, indef.pron: 비한정 대명사, n: 명사, np: 명사구.

BE, INF 및 부정에 대한 일반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 요소들을 구문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이론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NO-K구문은 그 자체로서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도전적이고 매력적인 연구 대상이다.

## II. NO-K구문의 DAT

I장에서 언급된 가설들에서 NO-K구문의 DAT는 각기 다음과 같이 상이한 구문유형들의 DAT에 준하여 이해된다.

가설 (i-a): 서술사(предикатив)구문 ((3-a))의 DAT

가설 (i-b): INF 주어 구문((3-b))의 DAT

가설 (ii): 독립적 INF구문((3-c))의 DAT

가설 (iii): 의사(擬似) 존재-소유구문((3-d))의 DAT

(3) a. Мне не надо это делать. 나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

b. Жизнь с ним - мне не нравится. 그와 함께 사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c. Мне не жить с тобой. 나는 너와 함께 살 수 없다/살아서는 안 된다.'

d. Мне нет оправдания. 나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NO-K구문 DAT의 통사적 위상에 대한 기존 논의는 주어설과 비(非)주어설로 대별될 수 있다.

### II-1. DAT 주어설

DAT 주어설로는 DAT를 술어 NO-K의 주어로 보기, 술어 INF의 주어로 보기, 그리고 의사 소유-존재구문의 주어로 보기가 가능하다.

II-1-a 술어 NO-K의 주어로 보기: NO-K구문을 서술사구문으로 간주하는 가설 (i-a) 중 서술사구문의 DAT를 주어로 간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NO-K를 서술사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일단 접어두더라도(이 문제에 대해서는 III-2-b를 보라) 일반적 서술사구문에서 DAT의 주어성 자체가 논쟁

거리인 점을 감안할 때 NO-K구문에서 DAT 주어설을 수용하는 데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일반적 서술사구문에서 DAT를 주어로 간주한 예로는 Шведова и др.(1982), Kondrashova(1993), Schoorlemmer(1994)를, 비주어로 간주한 예로는 Fowler(1987), Greenberg and Franks(1991)를 보라. (자세한 사항은 이인영(2007) 참조.)

II-1-b. 술어 INF의 주어로 보기: NO-K구문을 독립적 INF구문으로 간주하는 가설 (ii) 중 독립적 INF구문의 DAT가 INF의 주어라는 주장이 이에 해당한다. 독립적 INF구문의 DAT는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주어로 간주되어왔다. Greenberg(1985:176), Neidle(1988:129), Greenberg and Franks(1991:79, 84), Moore and Perlmutter(2000) 등을 보라. (자세한 사항은 이인영(2007) 참조.)

독립적 INF구문 및 NO-K구문이 부재하는 슬라브어들에서 이 두 구문의 DAT가 모두 HAVE구문의 주어에 상응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의 간접적 근거가 될 수 있다. (4-a)와 (4-b)를 비교해 보라.

- (4) a. o mĭm robit'? (슬로바키아어, Greenberg and Franks 1991:84)  
 what—I have—to do' cf. Что мне делать?  
 b. Nemĭm o ĭat'. (슬로바키아어, Mrazek 1972:103) I'don't have  
 —what—to read' cf. Мне нечего читать.

그러나 이 가설을 따를 경우, (5)와 같이 두 개의 DAT를 갖는 NO-K구문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

- (5) Мне некому работать. 나는/내게는 일할 사람이 없다.<sup>8)</sup>

하나의 절 내에 두 개의 주어가 가능하지 않음이 분명하다면 (5)의 두 DAT 중 적어도 하나는 주어가 아니어야 하는데 Мне”가 INF의 주어라면 “кому”와 INF의 관계 설명이 곤란하고 “кому”가 INF의 주어라면 Мне”가 왜 여기서는 (1)에서와 달리 주어가 아닌지를 설명하기가 곤란해진다.

---

8) ?? Я ему работал. 나는 그에게 일해 주었다.”가 매우 의심스러운 점을 고려할 때 여기서 “кому”는 INF의 수혜자 여격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5)에 대해 나는/내게는 내가 [그를 위해] 일해 줄 [그러한] 사람이 없다.’라는 해석은 불가능하다.

II-1-c. 의사 존재-소유구문의 주어로 보기: 가설 (ii) 중 의사 존재-소유구문의 DAT를 주어로 간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NO-K구문이 부재하는 슬라브어들에서 NO-K구문의 DAT가 HAVE구문의 주어에 상응하는 점 ((4-b))이 이 가설에서도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6)도 참고하라.

(6) Nemamo ta ovde da radimo. (세르보-크로아티아어, Greenberg and Franks 1991:84) we don't have—what—here—conj.—we do' cf. Нам здесь нечего делать.

NO-K구문의 긍정 상응문인 ЕСТЬ K구문에서 DAT가 y+GEN과 치환 가능한 점 ((7))도 y+GEN이 존재-소유구문의 주어라는 주장 하에서는 DAT 주어 설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다.<sup>9)</sup> (y+GEN이 존재-소유구문의 주어라는 주장에 대한 논의로는 이인영(1998)을 보라.)

- (7) a. Мне есть что делать. ~У меня есть что делать. 나는 할 것이 있다.  
 b. Нам было чем платить. ~У нас было чем платить. 우리는 지불할 수단이 있었다.'

ЕСТЬ K구문의 DAT와 존재-소유구문의 y+GEN이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둘 다 중립적 맥락에서는 문두에 오며 재귀대명사 себя 및 свой를 결속할 수 있다. (8-a)와 (8-c), (8-b)와 (8-d)를 비교해 보라.

- (8) a. Ей есть за что себя ругать. (Greenberg 1985:177) 그녀는 자신을 욕할 이유가 있다.  
 b. Ему было что сказать своим родителям. (Greenberg 1985:177) 그는 자신의 부모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었다.'  
 c. У него есть дом для себя. 그는 자신을 위한 집이 있다.'

9) 구어에서는 NO-K구문에서도 DAT 대신 y+GEN이 사용되는 예가 발견되기도 한다: У него некуда пойти. (Шведова и др. 1982:347) 그는 갈 곳이 없다.” 참고로, Mразек (1972:101)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어에서도 이러한 예가 발견된다: Мені нічого читати. ~У мене нічого читати. 나는 읽을 것이 없다.” Шведова и др.(1982: 347)나 Greenberg(1985: 179)는 y+GEN이 사용된 NO-K구문을 문체적 변이형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y+GEN이 DAT를 대신하는 NO-K구문의 허용 여부에 대한 모국어 사용자들의 반응은 상당한 개인차를 보이므로 이 유형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하기로 하겠다.

d. У него есть свой дом. 그는 자신의 집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есть*가 DAT를 항상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9-a)), DAT와 *y*+GEN 둘 다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 둘이 의미적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9-b)와 (9-c))은 이 둘이 의미-기능적으로 결코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인영 2008:183, Rappaport 1986:23 참조.)

- (9) a. \*Мне есть самовар. 나는 사모바르가 있다.’ cf. У меня есть самовар.  
 b. Мне нет оправдания. 나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아무도 내게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c. У меня нет оправдания. 나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나는 나 자신을 변명할 여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y*+GEN과 DAT가 보이는 [+처소성] 대 [+방향성]의 대립에 기인한다. (자세한 사항은 이인영 (2008) 참조.)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딘가에 존재함을 전제하므로 *есть*가 사용되는 전형적 존재-소유구문에서는 [+처소성]을 갖는 *y*+GEN이 선택되는 것이 디폴트이다. 한편, NO-K구문은 K가 부재하는 상황이 (참여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많은 경우 그의 의지에 반해서) 참여자에게 주어짐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방향성]을 갖는 DAT가 선택되는 것이 디폴트이다. NO-K구문의 긍정 상응문인 ЕСТЬ K구문에서도 *есть*가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DAT가 선택된다.<sup>10)</sup> 이 점에서 ЕСТЬ K구문은 유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표성은 ЕСТЬ K구문이 NO-K구문으로부터 이차적으로 파생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ЕСТЬ K구문이 NO-K구문보다 사용 빈도수가 떨어지고 NO-K구문 이후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1장 참조)은 이러한 가정과 맥을 같이 한다.

주어성의 문제로 돌아와 보자. 가설 (iii)의 DAT 주어설은 결국 존재-소유구문의 *y*+GEN 이 주어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y*+GEN의 주어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면 설득력을 잃게 된다. 문제는 실제로 *y*+GEN의 주어성이 논란거리라는 데 있다. 존재-소유구문의 전형적 표층구조인 *y*+GEN-BE-주격 NP에서 *y*+GEN의 문두성 및 재귀대명사 결속 가능성은 *y*+GEN 주어설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NP의 주격 형태 및 BE와의 문법적 일치는 NP

10) *y*+GEN이 선택되는 ЕСТЬ K구문은 *есть*와 *y*+GEN 간의 긴밀한 유대가 갖는 관성에 의해 생성된 일종의 변이형으로 볼 수 있다.

의 주어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Fowler(1987)나 Chvany(1975) 등이 이  $y + \text{GEN}$ 을 비주어로 간주한 점을 참고해 보라. 이상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접근은  $y + \text{GEN}$ 과  $\text{NO} - \text{K}$ 구문 DAT의 유사성을 인정하되 주어성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그 유사성을 찾는 길일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II-4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 II-2. DAT 비주어설

가설 (i-a)의 일부, 가설 (i-b), 그리고 가설 (iii)의 일부가 이에 해당된다.

II-2-a. 가설 (i-a)의 일부: 서술사구문은 무인칭구문으로서 주어를 가질 수 없으므로 서술사구문의 DAT는 주어일 수 없으며 따라서 서술사구문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  $\text{NO} - \text{K}$ 구문의 DAT도 주어일 수 없다는 주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주장을 따를 경우, DAT의 문두성 및 재귀대명사 결속성에 대한 설명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II-2-b. 가설 (i-b): 여기서는 INF가 주어로 간주되므로 DAT가 비주어인 것은 자명하다. 문제는  $\text{NO} - \text{K}$ 구문의 INF를 주어로 보는 것이 합당한가에 있다. 이 문제는 V-1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II-2-c. 가설 (iii)의 일부: DAT-BE-주격 NP로 이루어지는 의사 존재-소유구문에서는 주격인 NP가 주어이므로 DAT는 비주어이고 따라서 의사 소유-존재구문으로 분류될 수 있는  $\text{NO} - \text{K}$ 구문의 DAT도 비주어라는 주장이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에도 DAT의 문두성 및 재귀대명사 결속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 II-3. 절충설

DAT 주어설 및 비주어설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DAT가 심층의 비주어로부터 주어의 위치로(Chvany 1975, Bailyn 1991), 혹은 심층의 주어로부터 비주어의 위치로(Moore and Perlmutter 2000) 이동하는 것으로 보는 인들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심층 위치의 설정 및 이동에 대한 설득



력이 부족하다. DAT를 심층 주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심층 비주어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다시 주어설과 비주어설의 문제로 회귀되고 만다(자세한 논의는 이인영 (2007) 참조).

## II-4. 담화주제설

비주어설에서 DAT는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간접목적어로, 아니면 적어도 간접목적어에 준해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DAT에 대한 기존 논쟁은 결국 주어설과 간접목적어설로 압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주장 모두 DAT는 S차원 내의 문제라는 암묵적 전제에서 출발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두 주장 모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전제의 오류에 있다. 필자는 모든 구문이 담화주제(discourse topic) + S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NO-K구문의 DAT는 S의 외부에 존재하는 담화주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NO-K구문 DAT가 보이는 문두성 및 재귀대명사 결속성은 주어 자질이라기보다 담화주제의 현저성(prominence)과 관련된 자질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인영 (2008) 참조.) 이 자질들이 주어 자질로 인식되는 이유는 많은 경우 주어와 담화주제가 중첩되기 때문이다.

담화주제설은 NO-K구문에서 DAT의 필수성/임의성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임의성 옹호자로는 Григориева (1971), Шведова и др.(1982), Pesetsky (1982:157), Greenberg (1985:176), Rappaport (1986:2)를, 필수성 옹호자로는 Veyrenc (1979:61)를 보라.) NO-K구문의 DAT가 담화주제라면 그것은 뒤따르는 S 내의 필수 논항은 아니지만 그 S와 함께 전체 구문을 형성하는 데에는 필수적 요소이다. 다만, 담화주제는 상황-맥락적으로 명백하거나 추론 가능할 경우 표층에는 명시되지 않는 것이 디폴트이다. 많은 NO-K구문들이 표층에서 DAT를 동반하지 않기도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담화주제설은 NO-K구문 DAT와 존재-소유구문의 y+GEN이 보이는 유사성도 설명해 줄 수 있다. 이 둘은 모두 담화주제에 해당된다. (y+GEN의 담화주제성에 대해서는 이인영 (2008) 참조.)

담화주제설을 따르면 (5)(= Мне некому работать.”)에서와 같이 두 개의 DAT가 존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5)의 두 DAT 중 K “кому”는 INF “работать”로 이루어진 하부절의 담화주제에 해당하고, мне”는 некому работать”로 이루어진 상부절의 담화주제에 해당한다.<sup>11)</sup> (1-a)(= Мне нечего

делать.”)에서와 같이 DAT가 하나 뿐인 NO-K구문의 경우에도 근본적 구조는 동일하다. 다만, (1-a)에서는 (5)에서와 달리 하부절의 담화주체가 상부절의 담화주체와 동지시적 PRO이므로 표층에 드러나지 않는 점만 다를 뿐이다. 이러한 심층구조의 설정은 (10)이 두 가지 해석을 허용하는 점을 설명해 줄 수 있다.<sup>12)</sup>

- (10) Мне некому помочь. (a) 나는 [내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b)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 (10)' (a) мне<sub>1</sub> [не- [PRO<sub>1</sub> [помочь кому]]]  
 (b) мне<sub>1</sub> [не- [кому [помочь PRO<sub>1</sub>]]]

### III. NO-K

NO-K의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NO-K는 부정 표현 NE와 K라는 두 단위체의 결합인가, 아니면 단일 단위체인가? 둘째, NO-K의 K는 일반 의문사 K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

#### III-1. 별개 단위체설

NO-K를 NE와 K라는 두 단위체의 결합으로 간주하는 가설로는 (iii-a, b, c) 및 (ii)를 들 수 있다. 각 가설은 K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III-1-a. K 의문사설: 가설 (iii-a)에 따르면 NO-K구문은 의문사 K절을 동반하는 구문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Garde(1976:54)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1) 독립적 INF구문의 DAT가 담화주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인영(2007)을 보라.

12) (10)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점에 대해서는 Rappaport(1986:4)도 참조하라.

Я не знаю, что (мне) делать.  
 | | | | | | |  
 Мне<sub>i</sub> не ∃ (=∅) чего PRO<sub>i</sub> делать.

NO-K의 K가 의문사 K와 공통점을 갖는 것은 분명하다. NO-K의 K는 의문사 K와 마찬가지로 대명사(예: кого, чего, с кем, о чём)와 부사(예: зачем, куда, где, когда) 둘 다를 허용하며, INF를 선행하되 INF의 지배를 받는다.<sup>13)</sup>

그러나 NO-K의 K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의문사 K와 차이를 보인다.

첫째, NO-K의 K는 의문사 K와 달리 형용사 및 몇몇 부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 Мне не о какой/чей книге говорить.”; \* Мне несколько книг читать.”; \* Мне не о которой книге говорить.”; \* Мне никак писать.”; \* Мне непочему писать.”<sup>14)</sup>

둘째, NO-K의 K는 의문사 K와 달리 NE와 병합되면서 비강세화한다.<sup>15)</sup>

셋째, NO-K의 K는 NE에 의한 부정 범위 내에 들어있으므로 부정 생격이 가능한 반면, 의문사 K절의 K는 주절의 NE에 의한 부정 생격이 불가능하다: \* Я не знаю, чего (мне) делать.”

넷째, NO-K구문의 K에는 의문사 K에서와 달리 다수의 K가 불가능하다: \* Не на кого полагаться когда.” cf. Я не знаю, когда на кого полагается.” (Rapraort 1986:9)

다섯째, NO-K의 K는 의문사 K절과 달리 정동사 절을 이끌 수 없으며 INF 앞에 동지시적 DAT도 불허한다: \* Мне нечего делаю.”; \* Мне нечего мне делать.”<sup>16)</sup>

13) Мне нечему поучиться. 나는 배울 것이 없다.”에서는 K가 поучиться에 의해 여격 형태를 취하며, Мне нечем заняться. 나는 할 것이 없다.”에서는 K가 заняться에 의해 조격 형태를 취하는 점을 보라. 물론, K가 부사일 경우에는 고정된 형태를 취한다.

14) 참고로, Rapraort(1986:10)에 의하면 구어에서는 ЕСТЬ K구문에 какой, чей, как, почему가 사용되기도 한다: Мне есть какую книгу читать. 나는 읽을 어떤 책이 있다.” 그러나 сколько 및 который는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한데 이는 несколько, некоторый가 몇몇이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5) 부정 표현과의 병합이라는 점에서 NO-K는 NI-K(예: никто, ничего, ничем)와 유사성을 보이지만, NO-K의 K는 비강세라는 점에서 NI-K의 K와 차이를 보인다.

이상에서 내려지는 결론은 NO-K의 K가 본질적으로 의문사 K와 유사한 것은 분명하지만 NO-K의 K는 의문사 K보다 어휘적, 통사적으로 훨씬 더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K 의문사설로는 이러한 제약을 설명해 줄 수 없다.

III-1-b. K 관계사설: 가설 (iii-b)에 따르면 K는 INF 절을 이끄는 (제로 선행사를 갖는) 관계대명사/관계부사로 이해될 수 있다.<sup>17)</sup> Pesetsky (1982:157)의 분석을 보라.

Нечем писать  
 $[_S e \text{ INFL } [_{VP} n\bar{\alpha} - [_S' e m_i [_S \text{ PRO INFL } [_{VP} \text{ pisat}' e_i]]]]]$

K 관계사설은 (11)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 (11) a. Купите мне чем писать. (Rappaport 1986:17) '쓸 것 좀 사주세요.'  
 b. Я нашел где спать. (Rappaport 1986:17) '나는 잘 곳을 찾았다.'

이러한 점에서 K 관계사설은 K 의문사설보다 좀더 강력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K 관계사설은 (11)의 K와 유사해 보이는 (12)의 K를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보인다.

- (12) a. Если кто придет, скажите, что я скоро вернусь. (Rappaport 1986:24) '누가 오면 저 곧 돌아온다고 말해주세요.'  
 b. Не случилось ли чего? (Rappaport 1986:24)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 
- 16) Garde(1976:57)는 이러한 차이가 NO-K구문에서는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 및 주어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NO-K구문과 의문사절 구문 간의 차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Мне некому работать.' (=5))에서도 과연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러우므로 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 17) 다음 예들은 적어도 구어에서는 INF가 관계절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У меня нет стола, за которым работать. (Rappaport 1986:17) '나는 일할 책상이 없다.'; Я еще мне нужна ложка, есть которой. (Rappaport 1986:17) '나는 떠먹을 숟가락도 필요해.'

뿐만 아니라, K 의문사설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들은 K 관계사설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다.

III-1-c. K 비한정 대명사설: 가설 (iii-c)는 NO-K구문과 부정 존재-소유구문 간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NO-K의 K를 K-либо, K-нибудь와 같은 의미를 갖는 비한정 대명사(indefinite pronoun)로 간주한다. INF는 K의 보충어가 된다.

y+GEN	—	нет	—	NP
DAT	—	NO	—	[[K]indef.pron [INF]comp]np

K에 관한 한, 가설 (ii)도 (명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한정 대명사설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NO-K구문이 독립적 INF구문이라면 주(主) 술어인 INF의 보충어로서 가능한 K는 비한정 대명사뿐이기 때문이다.<sup>18)</sup>

K 비한정 대명사설은 K 의문사설이나 K 관계사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의 상당수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우선, 형용사 K는 대명사 K나 부사 K와 달리 -либо, -нибудь, -то와 같은 비한정성 표지자를 동반하지 않고는 비한정 대명사로 기능할 수 없으므로 NO-K의 K가 비한정 대명사라면 형용사 K가 NO-K에 사용되지 않는 점이 설명될 수 있다. 다음, K가 부정 범위 내에 들어가게 되므로 부정 생격 문제가 해결된다. 세 번째로, 비한정 대명사 K는 절을 이끌 수 없으므로 정동사 사용이 배제되는 점이 설명될 수 있다. 끝으로, K 비한정 대명사설은 (11)과 (12) 둘 다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나 K가 INF를 지배하는 가설 (iii-c) 식 K 비한정 대명사설에서는 K의 형태가 INF 의존적인 (각주 13 참조)이 설명되기 힘들다. 여기에 덧붙여, 일반적으로 러시아어에서는 비한정 대명사가 INF를 보충어로 갖지 못한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18) 일반 독립적 INF구문이라면 의문사 K도 가능하지만 NO-K구문에서는 K가 결코 문두에 올 수 없으며 의문사 K로서의 해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설 (iii-a)에서와 같이 종속절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가설 (ii)에서 의문사 K적 해석은 배제된다.

(13) \*У меня/Мне есть что-то делать. 나는 무언가 할 것이 있다.’

NO-K구문의 K가 비한정 대명사이지만 INF를 보충어로 갖는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NO-K구문의 K는 특수한 경우로 처리되어야 한다. 가설 (i)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INF가 술어이고 K가 그것의 보충어라는 가설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V-2-a 참조) 가설 (ii)에 의한 K 비한정 대명사설도 유보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K 비한정 대명사설은 K 의문사설이나 K 관계사설보다는 진일 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이 가설 또한 극복되어야 할 약점을 가지고 있다.

### III-2. 단일 단위체설

NO-K가 어휘적 혹은 통사적으로 하나의 단위체라는 주장들도 존재한다. 가설 (iii-d)의 NO-K 명사설 및 가설 (i)의 NO-K 술어설이 이에 속한다.

III-2-a. NO-K 명사설: 가설 (iii-d)의 대표주자인 Rappaport (1986)에 의하면 NO-K는 긍정 존재-소유구문의 N에 해당하는 단일 명사이다.

y +GEN	—	есть	—	[N]np
DAT	—	∅	—	[[NO-K]n [INF]comp]np

여기서 INF는 NO-K라는 N의 보충어로서 NO-K와 함께 NP를 형성한다. Rappaport(1986:14)는 NO-K구문이 부정문이 아니라는 근거로 문장 부정에서만 가능한 부정 극사(negative polarity pronoun)인 NI-K가 NO-K구문에서는 사용이 매우 의심스러운 점을 들고 있다.

- (14) a. ??Никому негде спать. (Rappaport 1986:14) 아무도 잘 곳이 없다.’  
 b. ??Нам никогда не о чем говорить. (Rappaport 1986:14) 우리는 결코 말할 게 없다.’

다음, Rappaport (1986:21)는 NO-K가 단일 단위체라는 근거로 *стать, оказаться*

와 같은 유사 BE 동사가 사용될 경우 부정 소사 не가 유사 BE 앞에 나타나지 않고 NO-K의 일부로 남아있는 점을 제시한다.

- (15) a. Стало нечего делать. 아무 것도 할 것이 없게 되었다.  
 b. \*Не стало это делать.

끝으로, Rappaport(1986:21)는 NO-K + INF가 통사적으로 일종의 관용구처럼 행동한다는 근거로 NO-K + INF 전체가 부정되는 예를 제시한다.

- (16) Нет, не нечего делать! (Л. Толстой, Rappaport 1986:21) 아니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위의 근거들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우선, Rappaport(1986:15)는 부정 극사가 사용된 문장 부정의 예인 (17)을 NO-K구문과는 통사적으로 별개의 구문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17)과 NO-K구문 간의 의미적 연계가 명백한 이상 그 연계성은 어떤 식으로건 설명될 필요가 있다.

- (17) Никому не было где лечь. (구어 러시아어, Rappaport 1986:15) 아무에게도 누울 곳이 없었다.'

(17)과 같은 NE-BE-K 유형은 구어 러시아어 뿐 아니라 고대 러시아어 및 기타 슬라브어들에서도 폭넓게 발견된다.

- (18) a. Нам не было/будет куда поставить своего сена. (구어 러시아어, Greenberg 1981:182)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초를 놓아둘 곳이 없었다/없을 것이다.'  
 b. ... не бяхе кому и воды подати (고대 러시아어, 94, Георгиева 1971:223) ... 물도 줄 사람이 없었다.'  
 c. Не было чаго чытаць. (벨로루시어) 읽을 것이 없었다.'  
 d. Ne bylo kam jít. (체코어, Mrazek 1972:103) 갈 곳이 없었다.'

(17), (18)의 예들과 NO-K구문이 보이는 연계성은 NO-K구문에 부정문적 요소가 잠재함을 시사한다.

다음, (15)가 NO-K의 단일 단위체성을 담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15)는 유사 BE가 일반적 어휘 동사와 BE의 중간에 위치함을 보여준다. (15-b)가 유사 BE와 일반적 어휘 동사의 차이를 보여준다면, (15-a)는 유사 BE와 BE의 차이를 보여준다. 유사 BE는 NO-K의 앞에 위치하는 반면, BE는 NO-K의 뒤에 위치한다.<sup>19)</sup> 나아가서, NE-유사 BE-K((15-b))는 비문법적인 반면, NE-BE-K((18-a))는 적어도 구어에서는 허용된다. 유사 BE와 BE 간의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유사 BE의 경우를 BE의 경우로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NO-K구문에서 유사 BE는 BE에 비해 명백히 유표적이고 주변적이다.

끝으로, (16)에서 *нечего*가 관용구의 일부로 고정된 형태일 뿐 부정 생격 형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Rapport(1986:16)는 *Мне некогда покупать книгу/\*книги. 나는 책을 살 시간이 없다.*에서 INF의 목적보어에 생격이 사용되지 않는 점을 제시하는데 이에 대한 원어민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NO-K구문 INF의 목적보어로는 대격보다 생격이 좀더 자주 사용된다는 Galikina-Fedoruk(1958:243)의 지적도 참고해 보라. NO-K에서 K의 형태가 INF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분명한 이상(각주 13 참조), *нечего*의 *чего*가 INF의 부정 생격 목적보어임을 부인하기는 힘들다.<sup>20)</sup>

여기에 덧붙여, 일반적으로 러시아어에서 명사는 INF를 보충어로 갖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V-3 참조.)

(19) \*У меня есть книга читать. 나는 읽을 책이 있다.'

이상을 볼 때, NO-K구문이 NO-K라는 단일 명사를 갖는 긍정 존재구문이라는 주장은 NO-K구문의 의미적, 통사적 특성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고 보기 힘들다.

19) 드물지만, NO-K의 화제화와 같은 유표적 맥락에서는 유사 BE가 NO-K 뒤에 올 수도 있다: *Неоткуда стало ждать писем. (Шведова и др. 1982:347) 여디로부터도 편지를 기다릴 데가 없게 되었다.* BE 또한 드물지만 일부 주변적 유형에서는 BE가 NO-K를 선행하기도 한다. (25-b, c)를 보라.

20) *Нечего смеяться! (Мразек 1972:104) 웃을 것 없어!* 혹은 *Пытаться уехать в Москву нечего и думать. (Б. Пастернак, Доктор Живаго, Forsyth 1970:251) 모스크바로 떠나려는 것은 생각도 할 것 없다.*에서와 같이 자동사 INF와 함께 나타나는 *нечего*는 논외임에 유의하라. 이러한 *нечего*는 (부사적) 서술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III-2-b. NO-K 술어설: 가설 (i)은 NO-K가 단일 단위체로서 서술사, 그 중에서도 특히 нельзя, надо, можно, пора와 같은 양상서술사(modal predicate, 이하 MP)와 유사한 술어로 기능한다고 본다. NO-K구문이 нельзя, надо, можно, пора 류의 MP구문과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두 구문 모두 양상적 해석을 가지며, 두 구문 모두 DAT와 INF를 동반하고 BE를 접어화한다.<sup>21)</sup> NO-K구문을 (20)의 MP구문과 비교해 보라.

(20) Мне не надо было это делать. 나는 그것을 하면 안 되었다.’

그러나 술어설(특히 MP적 술어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첫째, INF에 의해 K의 형태가 결정되는 NO-K와 달리 MP는 결코 INF에 의해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둘째, MP구문에서는 부정문에서나 긍정문에서나 동일하게 MP가 술어인 반면, NO-K구문의 긍정형인 ЕСТЬ K구문에서는 NO-K에 상응하는 ЕСТЬ K가 아니라 ЕСТЬ만이 술어로 작용한다.

셋째, 술어설로는 NO-K구문이 보이는 존재구문적 성향을 설명할 수 없다.

추후 NO-K구문에서 존재구문적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고 NO-K가 고정된 형태의 서술사로 인식되는 때가 올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NO-K구문이 그러한 지향성을 보이고 있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sup>22)</sup> 그러나 술어설은 NO-K구문의 현 위상을 설명하기에는 아직은 적절치 못하다.

### III-3. NO-K의 진화<sup>23)</sup>

NO-K구문을 역사적으로 검토한 Георгиева (1971:219-221)는 NO-K가 이미

21) 모든 MP구문이 BE를 접어화하지는 않는다. невозможно, необходимо 등을 보라. Veyrenc(1979:71) 참조.

22) 각주 20에서 언급한 (부정 생격이 아닌) «ничего»는 이러한 경향성의 가장 명징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NO-K들에 관한 한 이러한 경향성의 일반화는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23) 본 논문에서 ‘진화’라는 용어는 좀더 발전된 혹은 좀더 복잡한 형태로의 변화’라는 고전적 의미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일어난 변화’라는 좀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된 것임을 밝힌다.

11-12c부터 발견되며 11-17c 자료에서 추출된 NO-K는 80개에 이르는 반면 *нeсть* K는 5개에 불과한 점을 들어 NO-K를 하나의 비분리 단위체로 간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비현재형의 경우 NE-BE-K 형태가 현대에도 광범위하게 발견된다는 사실((18))은 이러한 결론이 성급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18)을 고려할 때, NO-K는 독립된 두 단위체로부터 점진적으로 한 단위체로 진화하였으며 그 과정은 지역이나 어체,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NO-K 현재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нe еcть K > нeсть K > нeт K > нe K > нe-K

위의 변천에 대한 음운론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нe еcть*는 *нeсть*로 병합된다. →
2. *нeсть* K는 자음군 *stK*가 *tK*로 축약되면서 *нeт* K화한다.<sup>24)</sup> →
3. *нeт* K는 *нeт*의 마지막 파열음 *t*와 K의 시작 파열음 *k*(혹은 *к*)로 이루어진 자음군 *tk/t*가 *k/*로 축약되면서 *нe K*화한다.<sup>25)</sup> →
4. 항상 함께 나타나는 *нe*와 K는 병합되어 단일 단위체 *нe-K*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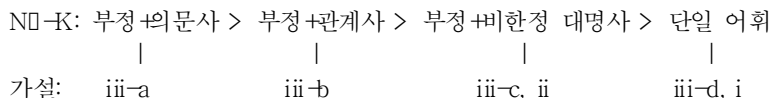
NO-K에서 강세가 K가 아니라 NO-에 떨어진다는 사실은 NO-와 *нeт*의 연관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нeт*의 과거형 *нo было*에서 강세가 *нo*에 떨어짐을 상기하라. *нeт*의 미래형 *нe бoдет*는 NO-K의 미래형 NO-K *будет*와 다른 강세 패턴을 보인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NO-K 구문에서 미래형은 현재형에 비해 훨씬 낮은 사용 빈도수를 보이는 점을 고

24) 일반적으로 러시아어는 자음군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음군 중 어느 자음을 생략할 것인가는 개별적으로 다르게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 {n'osl} → нeс, 그러나 {v'odl} → вeл.

25) 각주 24를 참고하라. 또한, 모든 *tk/t*가 *k/*로 축약되지는 않음도 참고하라. 예컨대, У нас нeт чeм мясo отбивать. (구어 러시아어, Greenberg 1985:182) 우리는 고기를 두들길 것[도귀]이 없어요.”에서는 *t*와 *в*의 병렬에도 불구하고 *нeт*와 K의 결합이 그대로 보존되는데 이는 존재-소유구문의 특성 상 *есть/нeт*를 명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 *нe будет* K의 경우에도 축약이 일어나지 않는다.

려할 때, NO-K 미래형의 강제 패턴은 디폴트인 현재형의 강제 패턴으로부터 유추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과거형 및 미래형의 문제는 IV-3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NO-K가 부정 존재사와 K라는 두 단위체의 결합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단일 단위체로 진화한 것이라는 가정은 필연적으로 K의 점진적 기능 변화를 함축한다. K는 종속절의 의문사로부터 출발하여 관계사라는 과도기를 거쳐 비한정 대명사화하고 마침내는 부정 존재사와 병합되어 단일 어휘를 형성하게 된다.<sup>26)</sup> 이러한 진화적 접근의 강점은 NO-K구문이 보이는 상충되는 면모들의 공존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가설들이 각기 나름대로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들이 진화의 어느 한 단계만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 IV. NO-K구문의 BE

BE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BE를 존재사와 연결사로 이분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설 (iii)은 NO-K구문의 BE를 존재사로 간주하는 반면, 가설 (i)과 (ii)는 이것을 연결사 혹은 시제 표지자로 간주한다.<sup>27)</sup>

##### IV-1. 존재사 가설

가설 (iii)이 NO-K구문의 BE를 존재사로 간주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 26) 단일 어휘로서의 NO-K가 명사인가 서술사인가에 대한 논란은 결국 진화 단계상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명사설(가설 (iii-d))이 아직 존재구문적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단계를 반영한다면, 술어설(가설 (i))은 존재구문과의 연관성으로부터 해방된(정확히는, 해방될) 단계를 반영한다. 즉, NO-K의 현 위상은 명사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앞으로 그것이 서술사화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 27) 본 논문에서 '연결사'라는 용어는 시제 표지 기능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시제 표지 기능만 부각될 경우에는 '시제 표지자'라는 용어가 별도로 사용될 것이다.

첫째, NO-K 과거형 NO-K было의 강제 패턴이 존재사 BE의 부정 과거형 NO было의 강제 패턴과 동일하다.

둘째, 타 슬라브어에서는 NO-K구문의 상응 구문으로 (HAVE를 취하는) 존재구문이 사용될 수 있다.<sup>28)</sup>

(21) Nie ma co je . (폴란드어, Mrazek 1972:102) *not—it has— what—to eat* cf. Нечего есть.

셋째, ЕСТЬ K 구문은 존재사 BE가 사용되는 전형적 구문인 Y+GEN구문으로 바뀌 써질 수 있으며, NO-K구문에서도 이러한 치환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각주 9 참조.)

넷째, 구어 및 고대 러시아어에서는 존재사 BE의 과거시제 형태인 не было/не быше +K 형태가 발견되기도 한다(18-a, b).

III-3에서 밝혔듯이, NO-K구문의 존재구문적 성격은 부정하기 힘들다. 문제는 NO-K구문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점차 존재구문과의 연계가 약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현대 표준 러시아어에서 \**Мне нет чего делать.*”와 같은 구문은 불가능함을 보라. 또한, 존재구문에서는 NE와 BE 사이에 다른 요소가 존재할 수 없고 BE가 NE를 선행할 수 없는 것과 달리, NO-K구문에서는 BE가 NE의 바로 뒤에 위치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BE가 NE를 선행하기도 한다(25-b, c). 이러한 사실은 NO-K구문의 BE를 존재사로 간주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 존재사 가설은 NO-K구문 BE의 원천을 설명하기에는 유용하지만 현재의 위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 IV-2. 연결사/시제 표지자 가설

이 가설에 따르면, NO-K구문의 술어는 NO-K(가설 (i)) 혹은 INF(가설

28) 러시아어의 NO-K구문에 상응하는 기타 슬라브어 구문들을 검토한 Mrazek (1972:100-101)에 의하면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는 HAVE만, 세르보-크로아티아어는 현재시제에서는 HAVE만, 폴란드어는 HAVE와 BE를 반반씩, 체코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는 둘 다 취하나 폴란드어보다는 HAVE를 약간 덜, 우크라이나어는 주로 BE를, 그러나 부정에서는 HAVE도, 벨로루시어는 주로 BE를, 그러나 부정 현재시제에서는 HAVE를 취한다. 러시아어는 BE만 취한다는 점에서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와 극적 대립을 보인다.

(ii)이고, BE는 연결사 혹은 시제표지자로서 보조 역할을 할 뿐이다. 우선 가설 (ii)부터 보자. 가설 (ii)에 따르면 NO-K구문은 부정 독립적 INF구문에 해당하는데 독립적 INF구문에서 BE는 연결사임이 분명하므로 NO-K구문의 BE도 연결사로 간주된다. 그러나 전형적 NO-K구문의 BE는 NO-K의 뒤에 나타나는 반면, 부정 독립적 INF구문의 BE는 부정 소사 не 앞에 나타나는 점(22)을 고려할 때, 이 두 구문의 BE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22) Грузовикам было не проехать. (Moore and Perlmutter 2000:396) 트럭들은 지나갈 수 없었다.’ cf. \*Грузовикам не было проехать.

이번에는 가설 (i-b)를 보자. 이 가설에 따르면 (23)은 INF 주어-연결사 BE-서술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23)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24) 또한 INF 주어-연결사 BE-NO-K 술어로 이루어져 있다.

- (23) a. Работать весь день было нелегко.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b. Было нелегко работать весь день. 하루 종일 일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24) a. Но спасти было некого. (Greenberg 1985:180) 그러나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b. Но некого было спасти. 그러나 아무도 구원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23), 특히 (23-b)에서 INF가 주어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논란이 존재한다. (V-1 참조) 그렇다면 (24), 특히 전형적 NO-K구문인 (24-b)에서 INF가 주어인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뒤따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24-b)는 (23-b)와 달리 BE가 술어를 후행하는 어순을 갖는다는 점에서 설령 (23-b)의 INF를 주어로 간주한다하더라도 동일한 논리가 (24-b)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 INF 주어설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이에 의거한 BE 연결사 가설은 유효될 필요가 있다.

다음, 가설 (i-a)를 보자. 이 가설은 NO-K구문의 BE가 (일부) MP구문의 BE와 마찬가지로 접어화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MP구문에서처럼 BE가 시제표지자로 기능한다고 본다. 그러나 NO-K구문과 MP구문의 동일화에 문제점이 지적된 이상(III-2-b 참조), MP구문에 준하여 NO-K구문의 BE를 시제표지자로 보는 접근은 설득력이 약하다.

NO-K구문의 BE를 연결사/시제표지자로 간주하는 가설들의 공통적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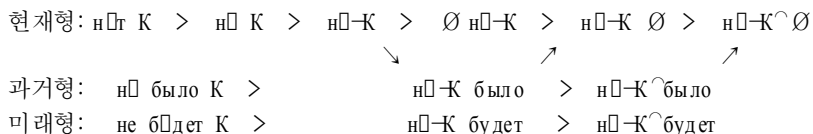
은 NO-K구문과 ЕСТЬ K 구문 간의 상응성이 깨진다는 것이다. ЕСТЬ K 구문의 BE가 존재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 하에서 볼 때, 연결사/시제표지자 가설을 따를 경우 ЕСТЬ K구문과 NO-K구문의 BE는 서로 다른 것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예로 III ведова (1970:565, 566)를 보라.) 두 구문의 BE가 강세, 위치, 형태 면에서 다른 양태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전형적 NO-K구문의 BE는 비강세이고 K 뒤에 나타나며 현재형의 경우 제로(∅)인 반면, ЕСТЬ K 구문의 BE는 강세를 받으며 K 앞에 위치하고 현재형의 경우 есть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NO-K구문과 ЕСТЬ K 구문은 부정과 긍정이라는 점 외의 본질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두 구문의 BE가 원천적으로 다른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좀더 설득력 있는 접근은 이 두 구문의 BE가 하나의 BE에서 출발하되 점진적으로 다르게 진화된 것으로 보는 것일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IV-3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 IV-3. 그 밖의 가설들 및 해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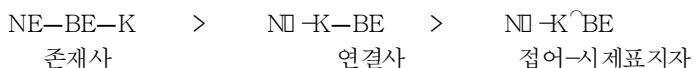
NO-K구문과 ЕСТЬ K구문의 동질성을 보이기 위해 Veyrenc(1979:74)는 두 구문 모두 강세-K-BE라는 동일한 구조를 공유하는 것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즉, NO-K구문과 ЕСТЬ K구문은 각각 NO-K-BE, -K-BE라는 심층 구조를 갖되 ЕСТЬ K구문에서는 의 강세가 실현되기 위해서 BE가 의 위치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접근은 ЕСТЬ K구문과 (ЕСТЬ를 사용하는) 일반적 존재구문과의 동질성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약점을 갖는다. ЕСТЬ K구문과 일반적 존재구문이 다르게 취급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적 존재구문의 BE도 심층에서는 -BE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터인데 이는 직관적으로나 경제성 원칙 면에서나 결코 적절하지 않다.

또 다른 안으로 NO-K구문에는 존재사 BE와 연결사 BE가 공존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Chvany(1975:62)에 따르면 NO-는 (부정) 존재사 BE이고, NO-K를 뒤따르는 было, будет는 연결사 BE이다. 이러한 공존론에서도 ЕСТЬ K구문의 BE가 문제가 된다. ЕСТЬ K구문의 BE가 존재사라면 ЕСТЬ K구문과 NO-K구문 간의 상응성이 깨지게 되고, ЕСТЬ K구문의 BE가 NO-K구문의 BE와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ЕСТЬ K구문에서는 하나의 BE에 (존재사와 연결사라는) 두 BE가 존재한다는 논리적 모순이 생기게 된다.

필자의 견해로는 NO-K구문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BE의 기능이 달라진 것으로 본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sup>29)</sup>



위 도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형에서 부정 존재사와 K가 병합되어 нѲ-K라는 한 단위체를 이루게 되면서 нѲ-K에서 부정 존재사적 기억은 약화되고 이에 따라 нѲ-K 자체가 ∅인 연결사를 갖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게 된다. 한편, 현재형보다 사용 빈도수가 현격히 떨어지는 과거형 및 미래형에서는 이미 нѲ-K가 확립된 현재형의 영향으로 нѲ-K의 형성을 위해 нѲ было/будет K가 нѲ-K было/будет로 어순 도치를 일으키게 된다.<sup>30)</sup> (이와 유사한 설명으로 Ломтев (1956:80)도 참조하라.) 미래형의 경우 어순 도치 뿐 아니라 강제 패턴의 변화도 유발된다. не와 결별한 было/будет에서는 존재사적 인식이 약화되고 연결사적 인식이 강화된다. 비현재형에서 было/будет가 нѲ-K의 뒤에 나타나는 것의 영향으로 현재형의 ∅ нѲ-K도 нѲ-K ∅로 재해석될 여지가 생기게 되고 결국 모든 BE(=было/будет/∅)가 비강제로서 нѲ-K 바로 뒤에 오게 되면서 нѲ-K의 접어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NO-K구문에서 BE의 존재사적 기원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결국 접어 BE에는 시제표지자적 기능만 남게 된다.<sup>31)</sup>



29) 아래 도표에서 ↘ 및 ↗는 영향을 준 방향을 의미한다. 현재형의 출발로 잡은 нет K는 정확히는 не есть K > несть K > нет K를 생략한 것이다. III-3 참조.

30) 드물게는 NE-BE-K에서 어순 도치가 NO-K-BE 대신 BE-NO-K로 일어날 수도 있다. 이 경우 (25-b)와 같은 변이형이 나타나게 된다. 유사 BE구문 (15) 또한 NE- 유사 BE-K가 유사 BE-NO-K로 어순 도치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31) 일찍이 Пешковский (1956[1928]:361)도 NO-K구문의 BE가 존재사로부터 연결사로 이행한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필자의 주장은 이를 좀더 정밀화, 체계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ЕСТЬ K구문이나 NO-K구문의 변이형들에서 BE가 위치나 기능 면에서 전형적 NO-K구문에서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위의 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밟느냐에 따른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ЕСТЬ K구문의 BE는 존재사 단계에 머문다. 한편, NO-K구문의 변이형들에서는 BE가 존재사 단계에 머물거나 접어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기도 하고, NE-BE-K가 위의 도식과는 다른 진화 과정을 밟기도 한다. NO-K구문 변이형의 대표적 예들을 보자.

- (25) a. NE-BE-K-INF: Нам не было/будет куда поставить своего сен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초를 놓아둘 곳이 없었다/없을 것이다.’(=18-a))  
 b. BE-NO-K-INF: Было не о чем вспоминать. (Шведова и др. 1982:347) 회상할 것이 없었다.’  
 c. INF-BE-NO-K: Но спасать было некого. 그러나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24-a))  
 d. NO-K-DAT-BE-INF: Некогда ему было разыскивать тряпку и загирать пол. (Greenberg 1985:180) 그는 걸레를 찾아내서 마루를 닦을 시간이 없었다.’

(25-a)는 ЕСТЬ K구문의 문장 부정 형태로서 이 유형의 BE는 ЕСТЬ K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존재사 단계에 머문다.

(25-b)는 NE-BE-K가 (NO-K-BE 대신) BE-NO-K로 대체되는 변이적 진화를 보이는 경우이다. (각주 30 참조.) 변이적 진화의 동기는 ЕСТЬ K구문과의 연상에서 찾아질 수 있다. NO-K 전체가 마치 ЕСТЬ K구문의 K에 상응하는 것처럼 취급된다는 점에서 이 유형의 BE는 ЕСТЬ K구문에서처럼 존재사적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 BE가 NE를 선행한다는 점에서 (25-a)의 경우와 달리 완전히 존재사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25-c)는 INF가 화제화되면서 INF 주어 구문과의 연상으로 BE가 문두의 INF 바로 뒤에 나타나는 변이적 어순을 보이는 경우이다. INF 주어 구문의 BE가 연결사인 점과 관련하여, 이 유형의 BE는 (25-b)에서보다도 더 연결사적으로 인식된다.

(25-d)는 NO-K가 화제화되면서 DAT로 인해 NO-K와 BE의 직접적 연결이 차단되어 BE가 NO-K의 접어화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이상의 변이형들이 시사하는 바는 NO-K구문 BE에서 존재사 > 연결사 > 접어-시제표지로의 진화는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며 그 과정 또한 매우 점



진적이어서 다음 단계로의 진입이 이전 단계의 완전한 소멸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NO-K구문의 BE에는 존재사적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다. BE의 진화에 대한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검토는 추후 연구의 몫이다.

## V. NO-K구문의 INF

NO-K구문에서 INF의 통사적 위상은 가설들에 따라 주어(i-b), 술어(ii), 종속절 내의 술어(iii-a, b), NO-K의 보충어(i-a), (iii-d), K의 보충어(iii-c) 등 매우 다양하게 제시된다. 일단, 주어설, 술어설, 보충어설로 대별하여 살펴보겠다.

### V-1. INF 주어설

가설 (i-b)에 따르면 NO-K구문은 술어인 NO-K와 주어인 INF로 이루어진다. 이는 (26)에서 INF가 주어라는 주장(Fowler 1987:175)과 맥을 같이 한다.

- (26) a. Мне нравится гулять. 나는 산책하는 것이 마음에 든다.  
 b. Хорошо гулять. 산책하기 좋다.’

(26)의 INF가 주어라는 주장은 (26)이 “Гулять — (это) мне нравится.”, “Гулять — (это) хорошо.”로 바뀌 쓰기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뒷받침된다. NO-K구문에서도 INF가 NO-K를 선행하는 어순((25-c))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동일한 논리로 NO-K구문의 INF도 주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6)의 INF가 주어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비근한 예로, Greenberg(1985:238-241)는 (26)의 INF를 보충어로 간주한다. 뿐만 아니라, (26)의 INF를 주어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25-c)는 \*Но спасать — это было некого.”로 바뀌 쓰기가 불가능하므로 (26)과 (25-c)가 통사적으로 동일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sup>32)</sup> 이러한 점에서 NO-K구문 INF 주어설은 유보될 필요가 있다.

32) 아울러, Что хорошо? — Гулять.”가 가능한 것과 달리, \*Что некуда? — Идти.”는 곤란한 점도 참고하라. Veyrenc(1979:64) 참조.

## V-2. INF 술어설

V-2-a. 주(主) 술어설: 가설 (ii)를 따르면 NO-K구문은 부정 독립적 INF구문에 해당하고 독립적 INF구문에서는 INF가 주 술어이므로 NO-K구문의 INF는 주 술어에 해당된다. NO-K구문을 부정 독립적 INF구문으로 간주하는 주장의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거론된다.

첫째, 두 구문의 DAT는 의미 기능 면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II-1-b 참조.)

둘째, 두 구문 모두에서 K의 형태가 INF 의존적이다.

셋째, NO-K구문과 수사학적 의문 INF구문 간에 치환관계가 성립한다. (Forsyth 1970:251-252 참조.)

(27) a. Нечего объяснить. 설명할 게 아무 것도 없다.' ~ Чего тут объяснить?  
설명할 게 뭐가 있나?'  
b. Мне незачем притворяться. 나는 가장할 이유가 없다.' ~ Зачем мне притворяться? 내가 뭐한다고 가장하겠나?

넷째, 두 구문 모두 불가능이라는 양상적 해석을 갖는다.

그러나 가설 (ii)는 부정 독립적 INF구문과 NO-K구문 간의 다음과 같은 차이들을 간과한다.

첫째, 부정 독립적 INF구문은 전형적으로 DAT-BE-NE-INF의 어순을 취한다. ((22) 참조.) 즉, NO-K구문에서와 달리 BE가 NE의 앞에 나타난다.

둘째, 부정 독립적 INF구문의 NE는 NO-K의 NE와 달리 강세를 동반하지 않으며 (K가 아니라) INF 바로 앞에 온다: \*С кем мне не говорить?"

셋째, 부정 독립적 INF구문의 K는 NO-K구문에서와 달리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며 대부분 문두에 그리고 반드시 BE보다 앞에 나타난다: \*С кем ему было не говорить?"

넷째, 부정 독립적 INF구문에서는 DAT의 y+GEN으로의 치환이 완전히 불가능하다: \*С кем у меня не говорить?" (각주 9 참조.)

다섯째, 두 구문이 보이는 양상성은 엄밀한 의미에서 동일하지 않다. 부정 독립적 INF구문에 대해서는 행위의 불가능성 뿐 아니라 금지라는 해석도 가능한 반면((3-c)의 번역 참조), NO-K구문에 대해서는 금지라는 해석은 불가능하다.

여섯째, NO-K구문이 보이는 특정 K들의 사용 제한(III-1-a 참조)이 부정 독립적 INF구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곱째, 부정 독립적 INF구문의 BE에서는 NO-K구문의 BE에서와 달리 존재사 논란이 완전히 배제된다. (IV-2 참조.)

여기에 덧붙여, ЕСТЬ K구문에서와 달리 긍정 독립적 INF구문에서는 есть가 사용되지 않는 점(\*Что мне есть делать?\*)도 참고해 보라.

이상의 차이점들을 고려할 때, NO-K구문을 부정 독립적 INF구문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한 INF 주술어설 또한 수용하기 힘들다.

V-2-b. 종속절 내 술어설: 가설 (iii-a) 및 (iii-b)에 따르면 NO-K구문은 부정 존재구문 내에 독립적 INF구문이 내포된 구조를 취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K가 INF에 의해 지배되고 INF는 다시 neg(≠NE)에 의해 지배되므로 INF가 NO-K를 지배하는 동시에 NO-K에 의해 지배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중성”(Гвоздев 1973:97)이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구조는 NO-K구문의 심층(혹은 초기) 단계의 묘사로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 구조는 NE와 K가 NO-K로 병합됨에 따라 내포절이 사라지게 되는 단계에서 INF의 위상을 묘사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 V-3. INF 보충어설

가설 (i-a)와 (iii-d)는 NO-K의 위상 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INF에 관한 한 NO-K의 보충어로 간주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가설 (iii-c)도 INF를 NO-K가 아니라 K의 보충어로 간주한다는 차이를 제외하면 INF를 특정 요소의 보충어로 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INF 보충어설은 NO-K를 단일 단위체로 간주하거나 적어도 K를 대명사로 간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상당히 후기 단계를 묘사한다고 할 수 있다.

NO-K구문의 INF가 일부 슬라브어들에서는 목적을 표현하는 전치사구((28-a))나 접속사절((28-b))에 상응한다는 사실은 INF의 보충어적 기능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28) a. Nie mam nic do czytania. (폴란드어, Mrazek 1972:101) 나는 읽을거리가 아무 것도 없다.' cf. Мне нечего читать.

b. Нема кој да ора. (불가리아어, Мразек 1972:100) 경작할 사람이 없다.' cf. Некому пахать.

그러나 INF가 K나 NO-K의 보충어라면 INF가 K나 NO-K에 의존적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K의 형태가 INF 의존적이므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러시아어에서는 비한정 대명사나 명사가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와 달리) INF를 보충어로 허용하지 않는 점도 가설 (ii-c, d) 식 INF 보충어설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13), (19) 참조.) 덧붙여, 러시아어에서 명사의 보충어는 명사의 바로 뒤에만 나타날 수 있음((29)을 고려할 때, (25-c)에서와 같이 INF가 NO-K를 선행하는 경우 가설 (iii-d) 식 INF 보충어설은 문제가 될 수 있다.<sup>33)</sup>

(29) \*отца дом 아버지의 집' cf. дом отца

INF를 서술사 NO-K의 보충어로 보는 가설 (i-a)은 가설 (ii-c, d)와 달리 이러한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 MP가 INF를 보충어로 요구한다는 사실은 가설 (i-a)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K의 형태가 INF 의존적인 점을 설명할 수 없다는 INF 보충어설의 공통적이고 중대한 약점을 피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INF 보충어설의 적합성은 후기 단계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제한 하에서도 NO-K구문에서 보충어로서의 INF는 완벽한 보충어라기보다는 보충어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혹은 특별한 의미의 보충어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V-4. 종합 및 결론

INF의 위상이 모호한 것은 INF가 원천 상 V로부터 파생된 N, 즉,  $[V]_N$ 으로서  $[+V]$  자질과  $[+N]$  자질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여기에 덧붙여, INF가 목적 표현에 사용되던 supine을 대치하게 되면서 INF에 부가어적 기능까지 첨부되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INF 주어설, INF 술어

33) 이 점을 고려할 때, INF 보충어설을 유지하려면 (25-c)에서 INF의 화제화는 INF가 K나 NO-K의 보충어화하기 이전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설, INF 보충어설은 각각 INF의 [+N] 자질, [+V] 자질, 부가어적 자질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K가 의문사로부터 출발하여 비한정 대명사로 전환되고 궁극적으로는 NO-K로 병합되는 것과 병행하여, INF 또한 의문사 K질의 술어로부터 비한정 대명사 K의 보충어화 단계를 거쳐 NO-K의 보충어화 단계 (혹은 NO-K의 주어 단계(?))로 전환이 일어난다.<sup>34</sup> 기존 가설들은 INF 진화의 어느 한 단계만을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35</sup>

INF: 종속절의 술어	> 비한정 대명사 K의 보충어화	> NO-K의 보충어화	(혹은 주어(?))
기존 가설 : iii-a, iii-b	iii-c	iii-d, i-a	i-b

## VI. 결론

1. Мне нечего (было/будет) делат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sup>36</sup>

mne<sub>i</sub> [neg ∃ [PRO<sub>i</sub> [делать что]]]

규칙 1: PRO<sub>i</sub> 삭제

규칙 2 의문사 K의 전치

규칙 3 의문사 K→ (관계사 K→) 비한정 대명사 K

34) 보충어화 단계”라는 표현은 아직 완벽한 보충어가 되지 않은 단계’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V-3을 참조하라. 주어 단계”에 (?)”를 첨부한 것은 필자의 견해로는 이 주장이 설득력이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V-1을 참조하라.

35) Георгиева(1971:226)도 NO-K구문 INF의 기능 전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그녀는 NO-K구문 INF가 주 술어에서 출발하여 NO-K의 보충어로 전환되었다고 본다. 이 점에서 그녀의 주장은 INF가 주 술어가 아니라 종속절의 술어에서 출발한다는 필자의 주장과 차이를 보인다. INF 주 술어설을 배제하는 필자의 견해에 따라 가설 (ii)는 필자 가설의 어느 단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6) 단순화를 위해 아래 구조에서 (시제를 포함한) INFL이나 DAT의 격 할당 등은 생략하였다. neg ∃는 현재형에서는 нет로, 과거 및 미래형에서는 각각 не было, не будет로 구현된다.

- 규칙 4:  $K[\neg\text{-case}] \rightarrow K_{\text{gen}} / \text{neg} \exists \_ \text{ } ^{37)}$   
 규칙 5:  $\text{нет } K \rightarrow \text{не } K$   
 규칙 6:  $\text{не } K \rightarrow \text{не-}K$   
 규칙 7:  $\text{не-}K \rightarrow \emptyset \text{ не-}K$   
 규칙 8:  $\text{не было/будет } K \rightarrow \text{не-}K \text{ было/будет}$   
 규칙 9:  $\emptyset \text{ не-}K \rightarrow \text{не-}K \emptyset$   
 규칙 10:  $\text{не-}K \text{ было/будет}/\emptyset \rightarrow \text{не-}K \overset{\frown}{\text{было/будет}}/\emptyset$

- |  |  |
|--|--|
| (I) Мне <sub>i</sub> [нет [PRO <sub>i</sub> [делать что]]] | (I) Мне <sub>i</sub> [не было/будет [PRO <sub>i</sub> [делать что]]] |
| → 규칙 1   | → 규칙 1   |
| (II) Мне [нет [делать что]]                                | (II) Мне [не было/будет [делать что]]                                |
| → 규칙 2   | → 규칙 2   |
| (III) Мне [нет [что делать]]                               | (III) Мне [не было/будет [что делать]]                               |
| → 규칙 3   | → 규칙 3   |
| (IV) Мне [нет что делать]                                  | (IV) Мне [не было/будет что делать]                                  |
| → 규칙 4   | → 규칙 4   |
| (V) Мне [нет чего делать]                                  | (V) Мне [не было/будет чего делать]                                  |
| → 규칙 5   |  |
| (VI) Мне [не чего делать]                                  |  |
| → 규칙 6   |  |
| (VII) Мне [ничего делать]                                  |  |
| → 규칙 7   |  |
| (VIII) Мне [ $\emptyset$ ничего делать]                    |  |
|  | → 규칙 8   |
|  | (IX) Мне [ничего было/будет делать]                                  |
| → 규칙 9   |  |
| (X) Мне [ничего $\emptyset$ делать]                        |  |
| → 규칙 10  | → 규칙 10  |
| (XI) Мне [ничего $\overset{\frown}{\emptyset}$ делать]     | (XI) Мне [ничего $\overset{\frown}{\text{было/будет}}$ делать]       |

2. “Мне некому (было/будет) работать.”에서는 1의 구조에서 PRO<sub>i</sub> 자리를 Kdat가 차지한다.

37) 규칙 4는 부정 생격 할당 규칙으로서 K에 이미 격이 할당되어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мне [neg [∃ [кому [работать]]]]

따라서 여기서는 규칙 1, 2, 4는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규칙들은 다 적용된다.

3. NO-K구문의 긍정 상응문인 ЕСТЬ K구문 Мне есть/было/будет что делать.”에서는 규칙 1, 2, 3까지만 적용되고 IV가 최종 단계가 된다.

мне<sub>i</sub> [∃ [PRO<sub>i</sub> [делать что]]]

(I) Мне<sub>i</sub> [есть/было/будет [PRO<sub>i</sub> [делать что]]]

→ 규칙 1

(II) Мне [есть/было/будет [делать что]]

→ 규칙 2

(III) Мне [есть/было/будет [что делать]]

→ 규칙 3

(IV) Мне [есть/было/будет что делать]

4. NO-K구문의 변이형들에서는 1의 규칙들이 모두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으며 변이적 규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

a. NE-BE-K-INF 유형( Нам не было/будет куда поставить своего сена.”)에서는 (ЕСТЬ K구문에서처럼) 규칙 1, 2, 3만 적용되고 IV가 최종 단계가 된다.

b. BE-NO-K-INF 유형( Было не о чем вспоминать.”)에서는 규칙 8 대신 변형 규칙 8가 적용된다.

규칙 8 : не было/будет K → было/будет не-K

당연히 규칙 10은 적용될 수 없다.

c. INF-BE-NO-K 유형( Но спасать было некого.”)에서도 규칙 8 대신 변형 규칙 8가 적용되고 따라서 규칙 10은 적용되지 않되 여기서는 변형 규칙 8'의 적용 이전에 INF의 화제화가 일어난다.

d. NO-K-DAT-BE-INF 유형( Некогда ему было разыскивать тряпку ...)에서는 규칙 10의 적용 이전에 NO-K의 화제화가 일어남에 따라 규칙 10은 적용되지 않는다.

5. 단계에 따라 NO-K구문의 구성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기능 전환을 보인다.

DAT: 복문 주절의 담화주제(I, II, III) > 단문의 담화주제(IV, V, VI, VII, VIII, IX, X, XI)

K: 의문사(I, II, III) > (관계사(III) >) 비한정 대명사(IV, V, VI) > NO-와 병합(VII, VIII, IX, X, XI)

BE: 존재사(I, II, III, IV, V, VI, VII<sup>38</sup>) > 연결사(VIII, IX, X) > 접어-시제표지자(XI)

INF: 종속절의 술어(I, II, III) > K의 보충어화(IV, V, VI) > NO-K의 보충어화 (혹은 NO-K의 주어(?))(VII, VIII, IX, X, XI)

6. 기존 가설들이 보이는 문제점의 대부분은 그것들이 일부 특정 단계(들)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데에 기인한다. I-XI 단계 중 종속절을 갖는 I, II, III을 초기 단계로, NO-K를 갖는 VII, VIII, IX, X, XI을 최종 단계로, 그리고 그 사이의 IV, V, VI을 중간 단계로 대별한다면, 가설 (iii-a)는 초기 단계만을, 가설 (iii-b), (iii-c)는 중간 단계만을, 그리고 가설 (i), (iii-d)는 최종 단계만을 다룬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설 (ii)는 초기 단계 구조의 일부분(종속절)에만 해당된다.

---

38) 엄밀하게 말하자면, VII은 존재사로부터 연결사로 이행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이인영(1998) 「러시아어 존재문 연구 — 의미-화용적 접근」, 『러시아연구』 8:2, 95-157.
- 이인영(2007) 「러시아어 여격 주어'구문 재고」, 『러시아연구』 17:1, 205-240.
- 이인영(2008) 「소위 소유 여격'에 대하여」, 『러시아연구』 18:1, 181-212.
- Галкина-Федорук, Е. М.(1958) *Безлич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Москва: Изд.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 Гвоздев, А. Н.(1973) *Современный русский литературный язык*, том 2: Синтаксис, Москва: Просвещение.
- Георгиева, В. Л.(1971) «О природе и истории отрицательных конструкций типа <Нечего делать>, <Некуда идти> (в соотношении с утвердительным),» *Ученые записки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45, 212-227.
- Исаченко, Александр В.(1954) *Грамматический строй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сопоставлении с словацким: Морфология*, часть первая, Братислава: Изд. Словац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 Ломтев, Т. П.(1956)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ческому синтаксису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осква: Изд.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 Мразек, Роман(1972) "Славянский синтаксический тип 'Мне нечего читать'," *Sborník prací filosofické fakulty Brněnské university* A-20, 97-105.
- Пешковский, А. М.(1956[1928]) *Русский синтаксис в научном освещении*, Москв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учебно-педагогическ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 Шахматов, А. А.(1941[1925/1927]) *Синтакси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Ленинград: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учебно-педагогическ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 Шведова, Н. Ю.(1970) *Грамматика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осква: Наука.
- Шведова, Н. Ю. и др.(1982)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том II: Синтаксис, Москва: Наука.
- Bailyn, John F.(1991) "The configurationality of case assignment in Russian," *Cornel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9, 56-98.
- Chvany, Catherine V.(1975) *On the syntax of BE-sentences in Russian*,

- Cambridge, Mass.: Slavica Publishers, Inc.
- Forsyth, James(1970) *A grammar of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wler, George(1987) *The syntax of the genitive case in Russia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Garde, Paul(1976) Analyse de la tournure russe Mne ne ego delat', " *International Journal of Slavic Linguistics and Poetics* XXII, 43-60
- Greenberg, Gerald Ruby(1985) *The syntax and semantics of the Russian infinitive*, Ph.D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 Greenberg, Gerald R.(1987) "Genitive of negation and infinitives as subjects in Russian," *23rd Annual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105-115.
- Greenberg, Gerald R. and Steven Franks(1991) "A parametric approach to dative subjects and the second dative in Slavic,"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35:1, 71-97.
- Kondrashova, Natalia(1993) "Agreement and dative subjects in Russian," *Formal approaches to Slavic linguistics, the MIT meeting*, Ann Arbor: Michigan Slavic Publications, 255-285.
- Moore, John and David. M. Perlmutter(2000) "What does it take to be a dative subject?"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8, 373-416.
- Neidle, Carol(1988) *The role of case in Russian syntax*,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Pesetsky, David M.(1982) *Paths and categories*, Ph.D. dissertation, MIT.
- Rappaport, Gilbert C.(1986) "On a persistent problem of Russian syntax: Sentences of the type *Mne negde spat*"," *Russian Linguistics*, 10:1, 1-31.
- Schoorlemmer, Maaïke(1994) "Dative subjects in Russian," in J. Toman, ed., *Formal approaches to Slavic linguistics, Ann Arbor, 1992*, Ann Arbor: The Michigan Slavic Publications, 129-172.
- Veyrenc, Jacques(1979) *Les propositions infinitives en russe*, Paris: Institut d'Études slaves.

Abstract

On the Construction Type “Мне нечего делать.”

Lee, In-Young

I examined seven hypotheses on the construction type “Мне нечего делать,” which I would call  $N\bar{O}-K$  construction. It turned out that each hypothesis focuses only on some specific stage(s) of the derivation (or evolution) of  $N\bar{O}-K$  construction.

$N\bar{O}-K$  construction, i.e.,  $DAT-N\bar{O}-K-BE-INF$ , has as its deep structure a complex  $S$  with main negative existential clause and subordinate infinitival clause. Each clause is provided with its own  $DAT$  discourse topic. Discourse topic of subordinate clause may be either  $PRO$  or  $K$ .

Мне нечего делать.	мне <sub>i</sub> [neg [∃ [PRO <sub>i</sub> [делать что]]]]
Мне некому работать.	мне [neg [∃ [кому [работать]]]]

The above complex structure gradually transforms (or evolves) into a simple  $S$  with a single  $DAT$  discourse topic. Major rules applied for the full derivation of  $N\bar{O}-K$  construction are as follows:  $PRO_1$  deletion, movement of interrogative  $K$  to the leftmost position, shift of  $K$  from interrogative to indefinite pronoun, GEN NEG rule, elimination of consonant clusters in front of  $K$ , incorporation of NE and  $K$ , addition of  $\emptyset$  to  $NE-K$ , metathesis of  $BE$  and  $K$ , and encliticization of  $BE$ .

Peripheral constructions such as  $NE-BE-K$  or  $BE-N\bar{O}-K$  found in colloquial Russian, and topicalized variants such as  $INF-BE-N\bar{O}-K$  or  $N\bar{O}-K-DAT-BE-INF$  can be derived from the same deep structure with the same rules but with slight modification or non-application of some rules.  $ЕСТЬ K$  construction can also be derived from the same deep structure with, of course, only the omission of NEG.

During the course of derivation/evolution all elements of the construction suffer functional changes as follows:

DAT: discourse topic of main clause within complex S > discourse topic of simple S

K: interrogative ( > relative ) > indefinite pronoun > integration with N□-

BE: existential > copula > enclitic, tense marker

INF: predicate in subordinate clause > compliment of K > compliment (or less likely, subject) of N□-K.

---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09. 03. 11
	논문심사일:	2009. 03. 20 ~ 2009. 04. 12
	심사완료일:	2009. 04. 19